

교육 여건 개선 제안 240여건

6~9월 14개 시군 대상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토크'서 농촌유학·학생 해외연수·구도심학교 활성화 등 제안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토크'가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제안이 240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서거석 교육감이 6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14개 시·군 현장에서 진행한 공감토크에 학부모와 교직원 5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력 신장 △교과와 학생인권 균형과 조화 △미래교육 등 주요 교육정책을 소개한 후 지역 교육 현안을 주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이에 학부모와 교직원들은 농촌유학과 학생해외연수 지원 확대, 체육시설 설치, 구도심학교 활성화,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제안을 했다. 전북교육청이 검토 대상으로 분류한 제안만 240여 건에 달했다.

전문의 한 학부모는 "농촌유학의 기회를 도심 학생들이 누리면 좋겠다"며

서, 유학생과 학부모들이 머물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 무주의 한 학부모는 지난해 이뤄진 자녀의 뉴질랜드 해외연수를 언급하며, "민족도가 높았다. 지속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주에 사는 한 학부모는 구도심 학교 활성화를, 또 다른 학부모는 아동 비만 예방 식단을 각각 주문했다.

이밖에도 △아울림학교 확대 △꽃살장과 야구장 등 체육시설 설치 △운동장 잔디 식재 △엘리베이터 설치 △노후시설 개선 등 다양한 주문을 했다. 이와 함께 교직원들도 다양한 제안을 했다.

교장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외국인 노동자 자녀에게는 학습준비물 구입비 등이 지원되지 않는다"면서, 교육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무주의 학교 행정실장은 관사 확대를, 김제의 초등학교 교장은 한국어



서거석 교육감이 6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14개 시·군 현장에서 진행한 공감토크에 학부모와 교직원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력 신장 △교과와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 △미래교육 등 주요 교육정책을 소개한 후 지역 교육 현안을 주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학급 개실을 각각 요청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240여 건에 달하는 공감토크 제안을 부서별로 심도있게 검토해 교육정책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는 등 소통 채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가 소운동장과 보조구장 개선 공사를 마치고 16일 개장식을 가졌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학생·지역민 복지 증진'... 전북대 소운동장 시설 개선

총 48억4000여만원 투입... 이곳에서 한인비즈니스대회 드론산업박람회 개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소운동장과 보조구장 개선 공사를 마치고 16일 개장식을 가졌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국비와 대학 자체 예산 등 총 48억4,000여만원이 투입된 이번 개선 공사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됐다.

특히 오는 22일부터 3일 간 전북대 일원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 관련해, 이곳 소운동장에서 23~24일 드론산업박람회와 드론축

구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개선 공사를 통해 소운동장 신규 조성하고 직선화된 주변 도로를 개설했으며, 조망타워와 경관조명, 바닥조명 등을 설치해 학생과 지역민 누구나 소운동장을 찾아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조구장에 인조잔디와 관람석을 설치하고, 4개소에 21m 규모의 조망타워를 세웠다.

한편 이날 개장식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보직 교수, 교직원 및 학생들이 참석해 새롭게 조성된 소운동장

과 보조구장을 둘러보고 테이프 커팅식 등을 진행했다.

양오봉 총장은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우리 대학에서 개최되는데, 소운동장과 보조구장의 개선 공사를 적기에 마쳐 원활한 행사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과 지역민들이 대학의 시설을 보다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스포츠 콤플렉스 개축과 함께 단계적으로 교내 체육시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개교 77주년 기념

최태성 한국사 강사 초청 특강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은 개교 77주년을 기념해 오는 18일 오후 2시 1층 중도 라운지에서 EBS 한국사 스타 강사인 최태성 작가를 초청해 '한반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인문학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 작가는 '벌거벗은 한국사', '다시 갈 지도' 등 다양한 예능 및 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한국사 교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강은 대학 구성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장 접수는 50석 한정으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도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지역민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명사특강을 마련했다"며 "한국사에 관심 있는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약학대학, 의료용 대마 연구 심포지엄

약학관 개관 기념 '의료용 대마 연구개발' 등 주제

천연물 산업 고부가가치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대마(Hemp)는 신약 등으로 활용성이 무궁무진하지만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규제되고 있어 농업기술이나 의약품 개발, 식품산업으로의 적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대마의 유효 성분을 의료용으로 활용하고, 관련 산업 분야 발전에 접목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전북대학교 약학대학은 지난 15일 약학관 개관을 기념해 의료용 대마 연구 개발과 산업 발전 전략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대 약학대학과 신약개발연구소, 전북연구원, 한국의료용대마연구회 공동 주최로 진행된 심포지엄은 의료용 대마 연구의 현황과 향후 발전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 양오봉 총장, 오택립 미래첨단산업국장, 이날호 전북연구원장 등이 참여해 의료용 대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심포지엄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의료용 대마 연구개발 현황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산업 육성 전략이 논의됐다. 하의현 박사(전북연구원), 정세영 교수(단국대학교), 박우태 박사(농촌진흥청), 김상훈 박사(한국원자력연구원), 장관영 전무(㈜이케이), 안재경 사장(㈜기주 대원식품) 등이 발표자로 나서 대마를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바이오 산업 성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재철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정환 교수(전북대학교 생명과학과), 심현주, 소운조, 김전경, 김지현 교수(전북대학교 약학대학)가 참여하여 의료용 대마의 신종 개발과 효능 및 제형 연구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다. 전북대와 협력 기관들은 의료용 대마를 활용한 신약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연구 성과와 기술적 진전을 공유했다.

패널 토의에서는 이용철 교수(전북대학교병원), 채한정 교수(한국의료용대마연구회장), 백승하, 윤세영 과장(전북특별자치도청) 등이 참여해 의료용 대마 연구개발의 과제와 미래 도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북대 약학대학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으로 의료용 대마 연구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연구와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와 글로벌 제약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원광대 안전보건학과

노인안전 문제해결 특강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안전보건학과는 초고령화 시대 노인 안전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년기 통증의 이해: 예방과 관리' 특강을 지난 10일 교내 숭산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지방대학활성화사업단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대학이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으며, 안전보건학과, 소방행정학과, 응급구조학과 등 다양한 학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재활원 강운규 원장이 강연에 나섰다.

강운규 원장은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인을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닌 독립 보행이 어려운 사람으로 인식하는 시각을 제시하고, 젊은 사람이라도 일시적으로 보행에 불편을 겪으면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은 대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 약자에 대한 공감을 이끌었다. /익선=이재훈 기자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 진짜 이름 지어주세요

전북자치도교육청, 2026년 3월 개원 앞두고
기관명 공모... 28일까지 우편 등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설립 중인 (가칭)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의 기관명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가칭)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은 실내의 체험시설을 갖춘 유아 전용 체험장으로, 옛 순창 구림중학교 부지에 연면적 2,143㎡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기관명 공모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모든 직원(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원)과 순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8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angel258@jedu.kr), 인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최종 기관명은 교직원 선호도 조사 및 기관명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확정, 발표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가칭)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 설립을 통해 도내 유아들의 놀이체험 기회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동부권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서 "자유로운 놀이와 체험이 가능한 유아 체험장 설립 취지에 적합한 기관명 선정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된다"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초등 문해력 향상 자료집 개발

전북자치도교육청, '학습도구어' 내년 3월 초 4~6학년에 보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초등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학습도구어' 자료집 개발에 나섰다.

1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안에 학습도구어 자료집을 개발해 내년 3월부터 도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학습도구어는 핵심 어휘는 물론 문장 이해력까지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학년에 따른 읽기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개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범 운영을 통해 실제 학습장에서 학생들의 읽기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교사와 학생의 피드백을 반영해 개선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한 교사는

"학습도구어는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확실한 도구"라면서 "학습도구어 자료 개발로 학생들의 수업 이해를 돕는 동시에, 교사 또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업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운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문해력은 모든 학습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학습도구어 개발이 전북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학습도구어란 교과서와 같이 학술적인 내용을 다루는 책에 등장하지는 않으나,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만큼 교과서를 읽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하는 것이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국제교류원은 지난 14일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한 JJ-프렌즈 호스트 패밀리 결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 정착 돕는다

전주대 국제교류원, JJ-프렌즈 호스트 패밀리 결연식

전주대학교 국제교류원은 지난 14일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한 JJ-프렌즈 호스트 패밀리 결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16일 전주대에 따르면 대학 내 재직 중인 교수·직원들이 외국인 유학생들과 1:1로 결연을 맺고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 및 대학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한 JJ-프렌즈 호스트 패밀리 프로그램을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결연에 참여한 교수·직원 멘토와 멘티 유학생이 1:1로 총 7쌍이 결연했다. 이들은 2024학년도 2학기 동안 정기적으로 만나 한국어 대화부터 한국 문화 체험, 가정방문 등 다방면으로 함께 교류하며 도움을 줄 계획이다.

특히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직원이 직접 멘토가 돼 유학생들이 초기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들을 돕고 해결

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준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중국 유학생 석옥호(경영학과) 학생은 "전주대 캠퍼스 내에서 멘토를 찾게 돼 감사하다"며 "언어 제한과 문화 차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수님과 직원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가지며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주대 국제교류원 심영국 원장(호텔경영학과 교수)은 "기존 생활 터전을 벗어나 새로운 환경으로 도전한 여러분을 응원한다"며 "이번 결연을 통해 초기 대학 생활 가운데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국제교류원은 대학 생활을 도울 수 있는 대학 내부 구성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까지 외국인 유학생과 1:1 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